감추어진 생활을 함으로써 왕국 생활을 함

4/28 월요일

아침의 누림

마 14:23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되어도 거기 혼자 계셨다.

눅 6:12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마 14:14-22
14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다.
15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이곳은 외딴곳이고, 때도 이미 늦었으니, 무리를 보내시어 그들이 마을에 들어가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16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시자,
17 제자들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라고 하였다.
18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오십시오."라고 하시고,
19 무리에게 지시하시어 풀밭에 앉게 하신 후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20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조각을 거두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고,
21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오천 명가량이었다.
22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에 태우셔서, 그분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돌려보내셨다.

그분은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

주님은 무리와 함께 기적의 결과 안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 산에서 기도하시며 홀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면, 우리는 바로 떠나겠는가 아니면 그 큰 성공 안에 머물며 그것을 누리겠는가? 우리는 주 예수님의 본을 보고 따라야 한다. 그분은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결과 안에 머물지 않으셨다. 그 대신에 그분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 '홀로'라는 말은 매우 의미가 깊다. 이것은 그분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알리셨다면,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갔을 것이다. 그분은 기도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 위해 홀로 떠나셨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산에서', '기도 가운데'라는 세 가지 표현을 좋아한다. 우리는 산에서 기도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훈련함으로써 여기에 제시된 주님의 본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신 것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은 기도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4 권, 하나님-사람의 생활, 14 장, 185-18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자주 혼자서 기도해야 한다.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홀로 주님께 기도할 때만큼 깊이 주님을 누릴수 없다. 심지어 주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마 6:6).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친밀하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얼마나 가까운 지를 느끼게 된다. 우리는 무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교회 안의 성도들을 떠나서 더 높은 수준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낮은 수준에 있는 땅에 속한 것들을 멀리 떠나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우리는 무리에게 서 분별되어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 홀로 은밀하게 아버지와 함께하며 그분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어야 한다. 이것이 산에서 기도 가운데 머문다는 것의 의미이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바로 산으로 가신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마 14:23). 요한복음 6 장 27 절은 그 이유를 밝혀 준다.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 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십시오.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분께서 먹이신 사람들에게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믿는다. "아버지, 당신의 축복 아래서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축복하심을 통해 오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들은 그저 썩어 없어지는 양식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축복하시어 그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추구하게 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제가 당신께서 보내신 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오직 저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그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를 이런 식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저 제가 기적을 행하여 그들에게 물질적인 음식을 먹일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 Living Stream Ministry, 2022, used by permission

생명에 속한 양식을 줄 수 있는 이가 오직 저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 장에서 주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으로 계시하셨다. 궁극적으로 그분은 이 떡이 바로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63 절) 요한복음 3 장 34 절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며, 또 그 영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한다. 그분을 이같이 알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을 위해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4 권, 하나님-사람의 생활, 14 장, 186-18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4 권, 하나님-사람의 생활, 14 장

4/29 화요일

아침의 누림

마 6:1, 3-4, 5-15

1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여러분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앞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3 그러나 그대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그대의 구제를 은밀한 가운데 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5 또 여러분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6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7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8 여러분은 그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9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10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 빚을 용서하여 주시며,
13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출하여 주십시오.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4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한다면,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도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이지만,
15 여러분이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 장 1 절에서 '의'는 구제하고(2-4 절), 기도하고(5-15 절), 금식하는 것(16-18 절)과 같은 의로운 행실을 나타낸다. 의심할 바 없이 이 절들은 왕국 백성의 의로운 행실에 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말씀들은 자아와 육체를 드러낸다. … 물론 '자아'와 '육체'라는 단어들이 이 절들에서 사용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 열여덟 절에서 주님은 세 가지 예, 곧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자아와 육체로 가득한지를 보여 주신다.

사람의 육체는 영광을 받으려고 하며 언제나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선행을 하기 원한다. 그러나 왕국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서 비워지고 겸손해진 영으로 살며, 순수하고 단일한 마음으로 행하는 왕국 백성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육체 안에서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하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1, 32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왕국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이시기도 하다. … 그들에게는 창조된 타고난 사람의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창조되지 않은 영적인 신성한 생명도 있다. 그러므로 왕께서 산 위에서 반포하신 왕국의 새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의도는, 타락한 사람의 생명으로 그 율법을 지켜서 사람의 영광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원하고 신성한 생명으로 그 율법을 지켜서 아버지의 보상을 받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마태복음 6 장 4 절, 6 절, 18 절에서 주님은 '은밀한 가운데'라는 표현을 사용하신다. … 우리는 의로운 행실을 은밀한 가운데 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은밀한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6 장 4 절에서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께서 은밀한 가운데 보신다고 말씀하셨다. 왕국 백성은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살아야 하며 아버지의 임재를 주의해야 한다. … 하늘의 아버지께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은밀한 가운데 의로운 행실을 하도록 격려받아야 한다. 이 절에서 주님은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이 시대에 주어질 수도 있고(고후 9:10-11), 오는 시대에 보상으로 주어질 수도 있다(눅 14:14).

© Living Stream Ministry, 2022, used by permission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은밀한 가운데 한 결과는 자아와 육체가 죽음당하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행실을 과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선한 행실을 하지 않을 것이다. … 우리 왕국 백성에게 의로운 행실에 관한 기본 원칙은 결코 우리 자신을 드러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능한 한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가리며 은밀한 가운데 하라.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우리는 감추어져야 한다(마 6:3).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을 다른 이들이 모르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님께서 보상의 문제를 말씀하기는 하셨지만(마 6:1, 5),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상이 아니라 생명의 성장이다. 공개된 방식으로 자라는 성도들은 건강한 방식으로 자라지 못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은밀한 생명의 성장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은밀한 체험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우리는 은밀한 방식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과 교통해야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거나 깨닫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주님에 대한 이러한 은밀한 체험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러한 체험들이 우리의 자아와 육체를 죽이기 때문이다. 화나 정욕이 추한 것이지만, 우리의 생명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은 자아이다. 자아가 가장 눈에 띌 때는 공개적으로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을 즐길 때이다. 자아는 사람 앞에서 의로운 행실을 하기를 좋아한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그러한 자아가 있음을 시인해야 한다. 언제나 일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아와 육체로 가득하다. 자아는 영광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육체는 이목을 끄는 것을 좋아한다. … 이 부분의 말씀에 올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자아와 육체를 드러내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1, 320-32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1

4/30 수요일

아침의 누림

마 6:6, 18

6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18 그대가 금식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보이십시오.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마 17:1-9

1 육 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2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
3 보아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4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다 장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5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보아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6 제자들이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매우 두려워하였다.
7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시자,
8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단지 자아를 과시하고 육체를 나타내 보이는 법만을 아는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성장이 없을 것이다. 참되게 생명이 성장하는 것은 자아를 잘라 내는 것이다. …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건강한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알리지 않고서 매일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건강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그러나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를 항상 다른이들에게 말한다고 하자.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보상을 잃을 뿐 아니라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간교한 자아, 간교한 육체가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우리는 홀로 방 안에서 기도할 때 종종 다른 이들이 들었으면 한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보았으면 하면서 의로운 행실을 한다. 그러한 갈망과 의도는 건강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생명이 자라고 있지 않음을 가리킨다. …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생명이 자라고 있고 건강하다는 것을 확신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하면서 자신을 전시할 때마다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한 전시는 우리의 생명 성장을 크게 방해한다.(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1, 323-324 쪽)

© Living Stream Ministry, 2022, used by permission

오늘의 읽을 말씀

우주는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분이시며 은밀한 분이심을 나타낸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보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이는 그분께서 언제나 감추어져 계시고 은밀하게 행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처럼 은밀하고 감추어진 본성을 갖고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면, 이 생명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은 언제나 감추어져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 생명은 과시하고 전시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나 감추어져 있다. 위선자는 속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진 사람이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그저 밖으로 보이는 것일 뿐 내적 실재는 조금도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감추어진 생명에 어긋난다. 하나님 안에는 매우 많은 것이 있지만, 그분은 단지 조금만 나타내신다.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생명으로 산다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다른 이들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모를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많은 것을 줄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주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우리가 자주 금식할지라도, 이것 또한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안에 많은 것이 있어도, 우리는 아주 조금만 나타낼 것이다. 이것이 왕국 백성이 의로운 행실을 할 때의 그들의 본성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본성과는 엄청나게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백 달러를 기부하면, 그것을 홍보하면서 자신이 훨씬 더 많이 준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백 달러를 줄 때, 다른 이들이 우리가 십 센트를 준 것으로 알게 하는 편이 더 낫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한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으로는 결코 이런 종류의 실행을 할 수 없다. 그것은 과시하기를 즐기지 않는 생명인 신성한 생명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이 이 부분의 말씀에 담긴 중점이다.

우리가 진지하게 왕국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 아버지의 감추어진 생명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 언제나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는 타고난 생명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감추어진 생명으로 산다면, 우리는 공공연히 드러내 보이지 않고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다른 이들의 눈에 감추어져 있을 것이다. 많은 성도의 전기(傳記)들은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밝혀 준다. 종종 그러한 일은 그들이 죽은 뒤에야 공개되었다.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우리의 기도는 은밀한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 … 왕국 백성은 반드시 자신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체험을 가짐으로써,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그들의 하늘의 아버지를 접촉하고, 아버지를 은밀하게 누리는 체험을 하며, 그분에게서 어떤 은밀한 응답을 받아야 한다(마 6:6),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1, 324-326, 32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1

5/1 목요일

아침의 누림

사 45:15 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정녕 주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상 19:12 지진이 지나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다음에 부드럽고 나지막한 음성이 있었다.

요 20:14-17, 24-29
14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께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15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왜 울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라고 하시니, 마리아는 그분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분께 말하였다. "여보세요, 아저씨가 그분을 옮겨 가셨다면, 어디에 두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 가겠어요."
16 예수님께서 "마리아여!"라고 말씀하시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라고 말하였다(라보니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17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십시오."
24 그러나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5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하였으나, 도마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지 않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 보지 않고,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습니다."
26 팔 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어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27 그러시고 나서 도마에게 "그대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 보고, 그대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믿지

© Living Stream Ministry, 2022, used by permission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시니,
28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자,
29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을 전능하신 분, 의로우신 분, 은혜와 자비로 가득하신 분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으셨다.

이사야서 45 장 15 절에 기록된 이사야의 말은 그의 말 중에 가장 강조된 말이다. 이사야는 자신의 상상의 산물인 공허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말은 축적된 사실들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사야는 그 사실들을 살펴보고 숙고한 다음에 “하나님이시여 … 주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지켜보았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체험했던 것들을 주시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다음 신언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사야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이유는 무엇인가? …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리고 그들의 개인 생활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면서도 그분 자신을 감추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지만 항상 감추어져 계셨다. 그분께서 매우 많은 일을 하고 계셨지만,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일을 하신 분께서 누구이신지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어느 날 “정녕 주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친 것이다.(위트니스 리 소책자 시리즈,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3-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이다. 하나님은 감추어지기를 좋아하시지만 우리는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기를 열망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한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약 5:17)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시험을 견디지 못했다.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분명히 함께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타난 임재를 보여 주지 않으셨을 때 엘리야는 그것을 견디지 못했다. 그는 낙심하여 동굴로 숨어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제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몹시 질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언약을 저버리고, 여호와의 제단들을 무너뜨리며, 여호와의 신언자들을 칼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 혼자만 남았는데, 그들은 제 목숨도 노리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왕상 19:9-10). 하나님은 엘리야의 어려움을 아셨을 뿐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이시기를 원했다는 것도 아셨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것을 직접 입증해 주셨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왕상 19:11). 엘리야는 ‘주님께서 이 가운데 계시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11 절).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 엘리야는 ‘주님께서 틀림없이 이 가운데 계시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11 절). 그런 다음 불이 일어났다. 엘리야는 ‘주님은 태워 버리는 불이시므로 그 가운데 계시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12 절) 불이 지나간 다음에 부드럽고 나지막한 음성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 안에 계셨다(12 절). 엘리야는 주님께 “이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14 절)라고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아주 부드럽게 “칠천 명의 사람이 남아 있는데,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이들이다. 엘리야야, 나는 내 자신을 숨긴단다. 너는 내가 이미 칠천 명을 남겨 두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비교 18 절)라고 대답하셨다. 엘리야는 자신이 볼 수 있는 것에 따라서만 상황을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다. …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칠천 명을 그분 자신을 위해 남겨 두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활동은 이처럼 감추어져 있어서 심지어 신언자 엘리야까지도 그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시하기를 싫어하시는 성향을 갖고 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은 드러내어 일하시기보다 은밀하게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그 우주 안에 자신을 숨기셨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그분을 찾아야 할지 모를 정도까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셨다. … 그러나 삼 년 반 동안이나 그분과 동행했던 제자들조차도 그분을 참되게 인식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은 그분께서 자신을 끊임없이 숨기셨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분은 자신을 잠시 나타내시곤 하셨지만, 그런 다음에는 다시 자신을 감추셨다.(위트니스 리 소책자 시리즈,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4-6, 11-1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소책자 시리즈,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 Living Stream Ministry, 2022, used by permission

5/2 금요일

아침의 누림

시 42:7 주님의 바다 회오리 소리에 깊음은 깊음을 부르며 주님의 모든 파도와 거센 물결이 제 위로 지나갑니다.

사 37:31 유다의 집 사람들 중에 피신하여 남은 이들은 다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행 6:7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였다.

행 12:24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번성하였다.

행 19:20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힘 있게 자라고 점점 세력을 얻었다.

마 13:13:20–21
20 또 흙이 얕게 덮인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21 그의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깊은 곳에서 부르는 소리만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시 42:7). 얕은 것은 결코 깊은 곳을 만질 수 없고, 피상적인 것은 결코 속부분을 만질 수 없다. 오직 깊은 것만이 깊은 것에 반응한다. … 다른 이들은 우리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 것에만 깊은 속에서 반응할 수 있다. …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받는 도움은 단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곳의 중요성을 보아야 한다.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 무엇도 결코 다른 이들의 깊은 곳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단 한 번도 우리의 깊은 곳에서 도움과 유익을 받은 적이 없다면, 결코 자신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그 무엇도 갖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기 바란다면, 반드시 우리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와야 한다.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말이 깊은 곳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비록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사로잡고 잠시 동안 그들을 울게 하거나 기쁘게 하거나 흥분하게 만들지라도 그들의 깊은 곳을 만지지는 못할 것이다. 오직 깊음이 깊음을 부른다.(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37 권, 일반 메시지(1), 7 장, 6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을 때 한 가지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은 주님께서 주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발견된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들은 흙이 얕게 덮인 바위 위에 떨어졌으며,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 비유는 사람이 말씀을 받는 네 가지 다른 방식을 보여 준다. 주 예수님은 이 여러 상태 중 한 가지로서 흙이 얕게 덮인 바위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표면에는 흙이 얕게 있지만, 그 아래에는 바위가 있다. 씨가 이러한 땅에 떨어질 때 곧 싹이 나왔지만, 해가 나오자마자 뿌리가 얼마 없어서 말라 버렸다.

뿌리란 무엇인가? 뿌리는 토양 아래에서 일어나는 성장이다. 잎이란 무엇인가? 잎은 토양 위에서 일어나는 성장이다. 다시 말해서 뿌리는 감추어진 생활이지만 잎은 드러난 생활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문제점은 겉으로 보이는 생활은 많이 있지만, 은밀한 생활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감추어진 생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생활이 밖으로 공개되어 있다면, 우리에게는 약간의 뿌리도 없는 것이다. … 우리의 모든 체험이 드러난다면, 이때 우리의 모든 성장은 위를 향한 것이며, 아래를 향한 성장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뿌리 없이 잎만 있는 사람인 것이며, 얕은 흙 위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또 한 면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의 각 지체에게 주신 생명이 고유하고 개인적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분량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분량은 그것만의 고유한 특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특별한 용도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특별히 맡겨진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말라 버릴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은 다른 무엇보다 특별하다. 한 면으로 주님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마 5:14)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공개적인 것이다. 다른 한 면으로 주님은 "그러나 그대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대의 구제를 은밀한 가운데 하십시오.",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마 6:3–4, 6)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한 면으로 반드시 공개된 자리에 나아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선언해야 한다. 다른 한 면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우리가 감춰야 할 그리스도인의 미덕들이 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미덕을 과시하고 자신의 존재의 깊은 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뿌리가 없는 것이다. 그는 시험과 유혹의 때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 하나님께서

© Living Stream Ministry, 2022, used by permission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밑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37 권, 일반 메시지(1), 7 장, 65-6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소책자 시리즈, 깊은 곳과 깊은 곳이 서로 부름;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38 권, 일반 메시지(2), 66 장

5/3 토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12:3-4
3 또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4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말, 곧 사람으로서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 39:2-8
2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서, 자신의 보물 창고와 은과 금, 향료와 귀한 기름, 무기고 전체와 보물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을 모두 보여 주었다.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히스기야가 보여 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3 그때 신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하였다. "그들은 먼 땅 바빌론에서 나에게 왔소."
4 이사야가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라고 하자, 히스기야가 말하였다. "그들은 왕궁 안에 있는 것을 모두 보았소. 내가 나의 보물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 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소."
5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6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이날까지 너의 조상들이 쌓아 둔 모든 보물이 바빌론으로 옮겨져,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7 너에게서 나올 아들들 곧 네가 낳을 아들들 가운데 몇몇은 끌려가, 바빌론 왕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
8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 그러면서 그는 "참으로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화와 진리가 있을 것이오."라고 하였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의 시험을 견디지 못한다. 우리는 약간의 체험을 얻으면 즉시 나팔을 불어 그것에 대해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 … 바울 안에는 어떤 깊이가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무언가를 칠 년 동안 숨겨 둘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경이로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십사 년 동안 그의 체험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다. 십사 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그의 체험에 대해 조금도 아는 것이 없었다. 십사 년 동안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바울의 체험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다. 바울의 뿌리는 토양 아래 깊이 박혀 있었다.

뿌리는 극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가 바울의 일을 갖기 원한다면 바울의 '뿌리'를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울의 외적인 행실을 갖기 원한다면 바울의 내적인 생명을 가져야 하고, 바울의 드러난 능력을 갖기 원한다면 바울의 은밀한 체험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문제는 그들이 어떤 영적인 것이나 특별한 체험을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약간의 체험이 생기면 그들은 즉시 말해서 널리 퍼뜨려야 한다. …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뿌리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의 체험을 보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어 깊이를 갖게 하시기를 바란다!(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37 권, 일반 메시지(1), 7 장, 68-6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이사야서 39 장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바빌론의 궁정에까지 들어가자 바빌론의 사신들이 그를 위한 편지와 선물을 들고 파견되었음을 보여 준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지만 은혜의 시험을 견디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서, 자신의 보물 창고와 은과 금, 향료와 귀한 기름, 무기고 전체와 보물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을 모두 보여 주었다."(사 39:2)라고 말한다.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전시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 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간증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물론 우리는 간증을 해야 한다. 바울도 그렇게 했고 역대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그렇게 했다. 그러나 간증을 하는 것과 자신의 체험을 전시하기를 즐기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간증할 때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까지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일들을 마치 뉴스 보도처럼 널리 공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자신에게 어떤 뿌리도 없다는 것이 폭로될 뿐이다. 뿌리가 없는 것은 감추어진 보배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것은 감추어진 생활이나 감추어진 체험이 전혀 없는 것이다. 우리의 어떤 체험들은 반드시 덮인 채로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우리와 주님 사이의 비밀은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잘 간직되어야 한다. … 오직 주님께서 무언가를 밝히시려고 우리 안에서 움직이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밝힐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한 형제에게 약간의 체험을 말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감히 그것을 보류할

© Living Stream Ministry, 2022, used by permission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주어진 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있는 한 가지 법은 교통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법을 억누른다면 흐름은 중단될 것이다. 우리는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어야 하며,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일들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드러내는 것으로 인해 원수의 공격에 노출될 것이다.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와 지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생명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이 가진 감추어진 부분, 즉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체험들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어떤 뿌리도 밖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

뿌리를 밑으로 내리고 더 깊은 곳으로 우리 자신을 뻗어 나가게 할 때, 우리는 '깊음이 깊음을 부른다'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의 속생명의 깊은 곳에서 부터 풍성을 산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의 생활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내적 존재가 만져질 때, 즉시 다른 이들은 도움을 얻고 빛 비춤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 우리의 생활에 깊이가 없다면, 우리의 피상적인 일은 다른 이들의 생활에 피상적인 영향만 끼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오직 '깊음이 깊음을 부른다'.(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37 권, 일반 메시지(1), 7 장, 69-70, 72-7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4, 51-53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4권, 하나님-사람의 생활, 14장

5/4 주일

아침의 누림

마 5:3, 8
3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8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후 4:13, 16-18
13 또한 성경에 "나는 믿었기에
말하였다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 역시 믿고
말합니다.
16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7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
냅니다.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호 14:5-7
5 이스라엘에게 나는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처럼 망울지고 레바논 나무들처럼 뿌리
내리리라.
6 그의 가지는 뻗어 나가고 그의 광채는
올리브나무 같으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나무들
같으리라.
7 그 그늘 아래 앉은 이들이 돌아와 곡식같이
소생되고 포도나무같이 움 돋으리니 그 명성이
레바논의 포도주 같으리라.

© Living Stream Ministry, 2022, used by permission